

# 전북 가을축제, 눈·귀·입으로 즐겨요

김제 지평선, 남원 흥부제, 고창·의산 국화

전주 발효식품엑스포·비빔밥 축제도 기대

10~11월 두 달간 전북지역에서 농경문화와 지역역사의 흥과 맛,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축제는 크게 ▲김제 지평선 축제·고창 모양성제·정읍사 문화제·남원 흥부제 등 독특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문화 축제' ▲전주 비빔밥축제·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순창 장류축제 등 '음식축제' ▲고창 국화축제·의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꽃 축제'로 구분된다.

◇음식 3대 축제 '팡파르'='눈과 허, 귀로 즐기는 음식잔치에 오세요.'  
만경평야와 서해바다를 두루 품어 먹거리가 풍요로운 전주에서 음식과 관련한 3대 축제가 동시에 열린다.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된 '한국음식관광 축제'가 18~25일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같은 장소에서 '제10회 전주 국제 발효식품엑스포'(18~22일), '전주 비빔밥축제'(18~21일)도 함께 열린다.

축제는 18일 한식의 세계화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식을 비롯한 갖가지 전통 음식, 재료, 응기 등의 소개로 막을 올렸다.

제 2회 남원 흥부제가 '우애·나눔·

보은·행운'을 주제로 오는 27~28일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주민화합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만찬행사는 비빔밥·나눔행사로 바꾸고, 축하공연도 대중가수보다 세계 무형유산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이것이 판소리다'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통문화공연 중심으로 펼쳐진다.

◇음식 3대 축제 '팡파르'='눈과 허, 귀로 즐기는 음식잔치에 오세요.'

만경평야와 서해바다를 두루 품어 먹거리가 풍요로운 전주에서 음식과 관련한 3대 축제가 동시에 열린다.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된 '한국음식관광 축제'가 18~25일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같은 장소에서 '제10회 전주 국제 발효식품엑스포'(18~22일), '전주 비빔밥축제'(18~21일)도 함께 열린다.

축제는 18일 한식의 세계화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식을 비롯한 갖가지 전통 음식, 재료, 응기 등의 소개로 막을 올렸다.

## ■ 전북지역 10~11월 가을축제 일정

축제명	기간	장소
김제지평선 축제	10월 10~14일	김제시 벽골제 일원
미아문화제	11~13일	진안군 공설운동장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12~14일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전주 비빔밥 축제	18~21일	전주시 한옥마을
한국 음식관광축제	18~22일	전주 월드컵 축구 경기장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18~22일	"
고창 모양성제	19~23일	고창군 고창읍성
정읍 전국 민속소씨움대회	25~29일	정읍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정읍사 문화제	26~29일	"
의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6~11월 4일	의산 중앙 체육공원
고창 국화축제	26~11월 11일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남원 흥부제	27~28일	남원시 시랑의 광장
정읍 평생학습 축제	27~28일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순창 장류축제	27~28일	순창 전통고장 민속마을 일원
고창 수산물 축제	11월 3~4일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축제장

을 연다. '밥상의 재발견, 대를 잇는 전북의 맛집' 기획에서는 조상 대대로 순맛을 이어온 장인들이 고유의 요리법을 공개한다. 한국의 잔치 음식, 신토불이 재료로 만든 세계 음식,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찰의 자연 음식인 '힐링밥상'도 한 상 가득 차려진다.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밭한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세계발효마을 연대회와 국제발효 콘퍼런스 등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20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된 문화체험 마당, 제기차기를 비롯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래 놀이마당 등 5개 마당에 20개 분야·6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고창과 익산에서는 대표적인 가을꽃인 국화를 주제로 한 꽃축제가 열려 가을 행락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남원 고랭지 명품백합 日 수출길 나서

### 이달말부터 판매...온라인·관공서·軍 납품 추진

전주의 대표적 음식인 비빔밥이 우주식(食)으로 개발돼 곧 밥상에 오른다.

전주시는 '전주 우주식 비빔밥'을 대량 생산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 판매한다.

우주식 비빔밥은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고 최대 2년간 저장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야외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난 발생 때 비상식량이나 군 전투식량, 낚시와 등산과 같은 레저 스포츠용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주시와 정읍 방사선연구소 등은 1년여의 연구 끝에 '우주식 비빔밥'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러시아 연방 국립과학센터(SSCRF) 산하 의생물학연구소 (IBMP)의 인증평가도 통과했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 생산자연합회에 기술을 이전해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중 판매가는 4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 생산자연합회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팔고 관공서와 군 등에 납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 기능성 비빔밥과 프랜차이즈용 비빔밥 18종류도 추가로 개발해 선보였다.

기능성 비빔밥은 항당뇨와 항고혈압 등의 기능이 있어 환자식으로 보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용 비빔밥으로는 닭가슴살 비빔밥·해산물 비빔밥·누룽지 비빔밥 등이 나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예비 귀농인들의 농사 배우기

수도권 예비 귀농인 30여명이 최근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곱지재배농가를 찾아 견학을 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전담기구를 신설해 귀농·귀촌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단신

#### 군산 전국 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 13일 개최

국악에 재능 있는 청소년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한 '제2회 군산 전국 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가 13일 오전 9시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합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전북 도지사상과 군산시장상 등 총 35

명의 시상자를 선정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

#### 국립 전주박물관 '어필(御筆), 왕의 글씨전'

국립 전주박물관은 내년 1월 27일까지 문필가로 유명한 효종부터 영조와 정조 등 역대 조선 시대 왕들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는 '어필(御筆), 왕의 글씨전'을 연다.

특히 '효종 어필'은 효종이 남긴 글씨 중 가장 큰 크기로 보물(1628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시 주민자치 위원회의 역할 합동 워크숍

정읍시는 최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주민자치 위원 및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제1부에서는 지역 리더십 센터 '함께 이룸'의 조재화 대표가 '주민자치시대, 주민자치 위원회의 참여속에 각

주민자치센터를 진단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서해 어업관리단·부안군, 불법어업 일제단속

서해 어업관리단과 부안군이 10월 한달간 성육기 어체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벌인다.

서해 어업관리단은 단속기간 동안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를

비롯해 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을해 남원에서 생산된 백합이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수출된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윤봉읍 주촌리 조기호씨 백합 농장(660㎡)에서 생산된 백합이 지난 7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금·일요일에 일본 수출길에 나선다.

남원에서 생산된 백합은 지난 1992년부터 첫 해외수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2900만원의 외화를 획득했다. 남원시는 고랭지의 일교차가 큰 지리적 특성을 살려 화훼 생산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남원지역에서는 38 농가(32ha)가 백합을 비롯해 리시언사·오션블루, 안개꽃 등 15개 품목을 재배, 연간 4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는 화훼산업을 청정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에너지 절감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전주 '우주식 비빔밥' 밥상 오른다

### 서부산립청, 이달말까지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서부 지방산립청(청장 김성룡)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나무류선충병'

이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등

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

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록 유

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북, 서부 경

남지역의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펼쳐한다.

서부 산립청은 단속기간 동안 소나

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

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를

비롯해 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

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

는지를 확인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을해 남원에서 생산된 백합이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수출된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윤봉읍 주촌리 조기호씨 백합 농장(660㎡)

에서 생산된 백합이 지난 7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금·일요일에

일본 수출길에 나선다.

남원시는 고랭지의 일교차가

큰 지리적 특성을 살려 화훼 생산

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기간:

10. 18(목)~ 10. 20(토)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송해선상님

총회장